

양림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16~18일 '제5회 굿모닝! 양림'...술·음식 없는 문화·예술 축제

100여년 전 광주 최초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남구 양림동은 근대 유산의 보고(寶庫)다. 이장우·최승호 가옥이 잘 보존돼 있고 김현승 시인, 정윤성 음악가 등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을 배출하며 광주 대표 '역사 문화마을'로 불리고 있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양림동에서 문화 유산, 출

신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축제가 열린다. '제5회 굿모닝! 양림' 축제가 '양림으로 떠나는 가을여행'을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양림동 및 사직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굿모닝! 양림'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분위기를 반영해 술·음식 판매 등은 모두 배제시킨 점이다.

'양림동 화가' 12인·'100년 고택 예술가'展

전시 학강초등학교 인근 515갤러리에서는 '양림동 화가들'을 주제로 22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배동신, 황영성, 우재길, 김영만 등 양림동 출신 작가 12명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또 한희원미술관에서도 한희원 작가가 양림동을 소재로한 '그림으로 본 양림의 가을' 전시회를 25일까지 연다.

이외에도 최승호 가옥에서는 최인준 설치미술작가를 초청해 '100년 고택의 예술가'전을 열고 '그림으로 본 현재의 양림'(양림미술관), '양림 100년 사진전'(양림동커뮤니티센터), '사진 속 양림 1980'(양림미술관) 등이 25일까지 개최된다.

이용·신계행 등 출연 '가을 숲속 음악회'

공연 16일 오후 7시부터 사직공원 옛 수영장에 마련된 주무대에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양림 가을 숲속 음악회' 전야제가 열린다. 오카리나 연주, 합창, 트럼펫, 무용, 초대가수 이용·신계행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꾸며진다.

같은 장소에서 16~17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스틸 라이프' '아마데우스' 등 명작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양림 심야 예술극장'이 진행되며 18일 오후 2시부터는 클래식 가을여행, 포엠티



이용



배동신 작 '무등산'

서트(오후 3시), 통기타 연주(오후 5시) 등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열린다.

가을 우체통 편지쓰기·양림 역사 문화 탐방

체험 사직공원 옛 수영장에서 실시 스크린과 호두나무 피리, 캘리그라피 등 공예체험부터 숲속의 화가들이 펼치는 인물 스케치, 가을 우체통에 편지쓰기 등이 마련됐다.

17~18일 오전 10시부터는 '양림 100년 역사문화 탐방', '시비(詩碑)와 함께하는 문화탐방'이 진행되고 같은 시간 사직공원 체육공원에서는 색동회 등이 참여하는 '북 콘서트'가 열린다. 문의 062-607-231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대·美·문 전라도 대표 아름다운 문화축제

17~18일 무안 중앙공원서 56개 단체·15개 동아리 참여

전남지역민들이 예술로 교감하고 즐기는 체험형 생활문화예술축제가 열린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예술축제 '전.대.미.문'을 오는 17~18일까지 무안군 중앙공원(남악 신도심)에서 개최한다. 전.대.미.문은 '전라도 대표 아름다운 문화축제'라는 말의 줄임이다.

이번 축제는 전남도민이 문화를 즐기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 문예재단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왔던 '전남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의 규모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행사에서는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56개 단체와 생활문화예술동아리 15개 팀의 공연, 클래식·국악·락 공연이 펼쳐지고, 예술체험 행사도 열린다.

'청년 광장'을 주제로 열리는 첫날(17일) 행사는 '나주 빛가람직장인오케스트라'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노브레인'의 축하공연 '희희樂Rock', 목포 생활동아



지난해 열린 전남문화예술 교육주간 행사중 기무예단의 공연 모습.

리 인디밴드 '무음밴드'와 '한소리밴드'의 콘서트, 전남 토요문화학교 청소년 밴드 '아트포'의 공연, 비보잉댄스, 디지털 인소 등이 펼쳐진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는 '청춘 광장'(18일)이다. '추억의 서커스'와 '전남도립국악단'의 국악공연,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는 '극단 깃들'의 마당놀이 한마당이 있다.

상설행사로써는 거리마미퍼포먼스(극단

새결), 손 인형 만들기(인형극단 푸른고래), 3D 전통건축물 조립(한국축건축연구회)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예술가들이 만든 예술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트마켓'을 비롯해 추억의 과자를 판매하는 '재미난 가게', '허준 약방', 게임존(전통놀이 체험), '거리 ART-그래피티' 등 즐길 거리도 다채롭게 준비됐다. /윤영기자 penfoot@

광주음악제... 오페라와 실내악의 세계로 초대

17·18일 광주문예회관

'오페라와 실내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광주음악협회(회장 김유정)가 주최하는 제26회 광주음악제가 17, 18일 이틀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17일(오후 6시) 공연은 유명 오페라 곡을 만나는 시간이다. 주제는 '베르디&푸치니 오페라의 연인들'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일 트로바토레' 중 '불길은 타오르고'(김사라), '운명의 힘'

중 '이 엄숙한 시간에'(정기주·염종호), '라 보엠' 중 '오 사랑스런 아가씨'(김선희·강동명), '나비 부인' 중 '어떤 개인일'(김미옥), '시몬 보카네그라' 중 '괴로운 마음이어'(김일동), '운명의 힘' 중 '신이여 평화를 주옵소서'(이환희) 등이다. 피아노 반주는 동수정·박지현씨가 맡았다.

18일(오후 7시)에는 실내악 페스티벌이 열린다. 피아니스트 서현일과 박의혁이 에디션의 피아노 듀오 '바르샤바 협주곡'을 연주하며 일리라씨가 리스트의 '스페인 광시곡'을 들려준다.

또 박재연·이종만·이후성으로 구성된 '우노야니모 앙상블'이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삼중주 2번 4악장'을 선사하며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 마주얼 앙상블이 각각 '사운드 오브 뮤직'과 레스피기의 '뮤트를 위한 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제3 모음곡'을 연주한다.

그밖에 바리톤 김재선씨와 소프라노 권희진씨가 김진선 곡 '배달 거리의 꿈'과 구희영 곡 '춘강'을 부른다. 문의 010-2625-31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림 100년의 문을 열다

16일 오웬기념각 무성영화 '키드' 상영, 18일 최승호 가옥 '가을 음악회'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양림 100년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6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무성영화 라이브 공연이 건립 101년을 맞은 오웬기념각 앞 광장에서 열린다.

미국 무성코미디 영화의 최고 거장인 찰리 채플린의 '키드(The Kid)' 상영과 함께 밴드 'S.O.M(Sound of movie)'이 영화의 극적 흐름에 맞춰 구성된 연주를 즉석에서 들려준다. 'S.O.M'은 김다인(피아노), 김훈(드럼)으로 구성된 무성영화 전문 밴드다.

또 18일 오후 7시부터 최승호 가옥에서는 '가을음악회'가 열린다. 소프라노 이승희, 테너 김주안, 바이올린 홍의정, 첼로 이후성, 피아노 김성령 등이 출연해 피아졸라의 'Libertango(리베르탱고)', 몬티의 'Czardas(차르다시)',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등 클래식으로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영화 '키드'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14~20일 신호재 개인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14~20일 신호재 작가를 초청해 '푸름... 그 생명력을 향한 반추(Rumination)'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반추' 시리즈를 통해 인간과 우주, 생명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작가에게 정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요소다. 화폭 대부분을 정색의 하늘로 채운데 반해 인간은 깨알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Rumination' 시리즈

산과 강 위로 보여지는 드넓은 창공, 둥근 달과 어우러진 별빛은 이상세계를 꿈꾸는 인간의 갈망을 반영한다. 신씨는 자연 파괴와 물질문명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메마른 감정과 대비되는 대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生)의 의미를 반추하고 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한 신씨는 개인전 20여회, 단체전 400여회에 참여했고 한국미술협회 현대미술분과 부위원장, 광주미술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60-84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케익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스테리어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